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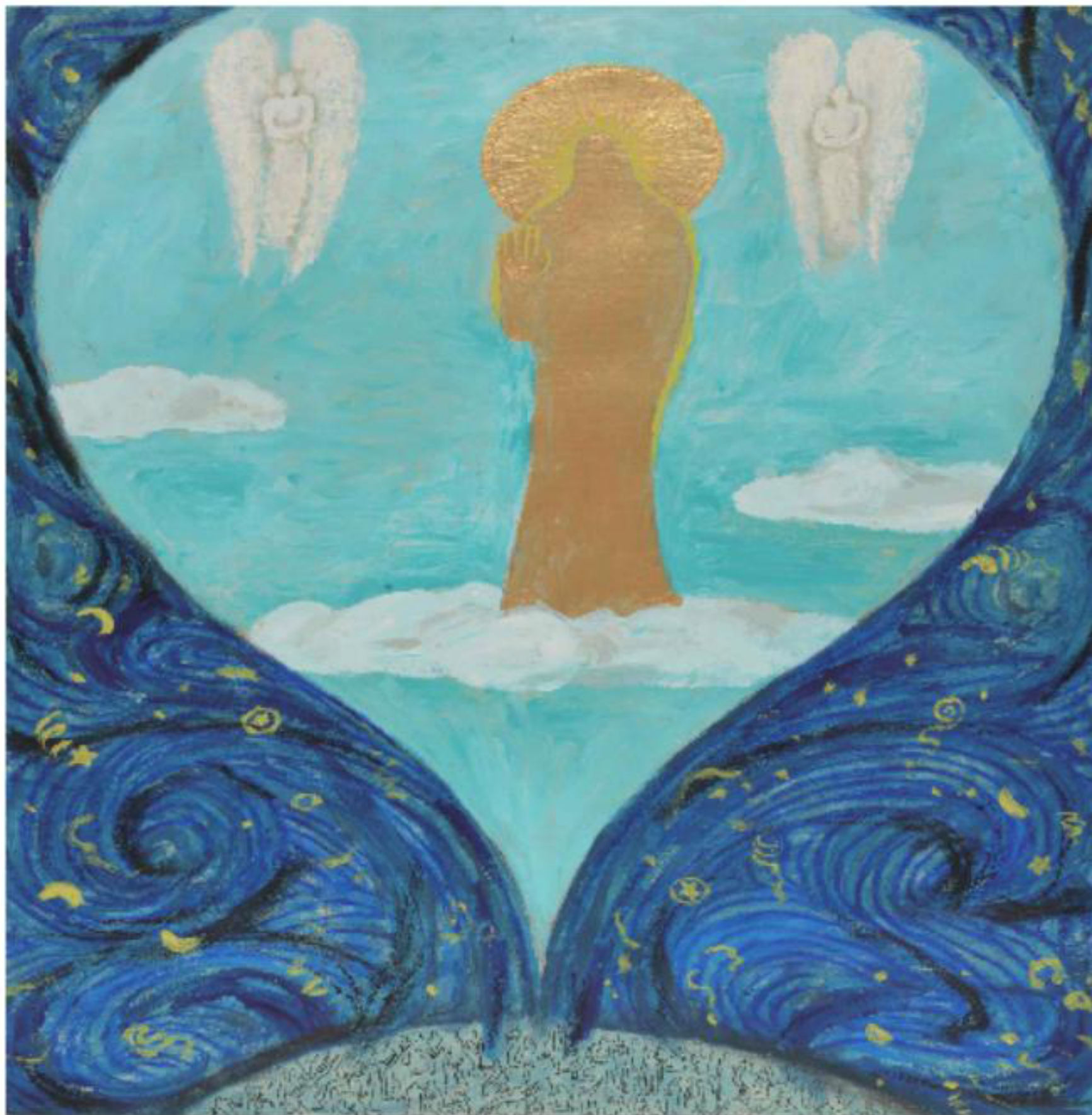
2021년 11월 14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33주일(11월 14일)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24-32)



주님의 날

그림 정미연 소화대리사 | 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의 날'로서, 세상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예고하시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악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르 13,29)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 13,31)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인 순간이나 성경말씀 중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술, 마약, 도박...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것도 잊게 하고, 인생이 낭비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우리를 취하게 하고, 깊이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일 중독... 그렇게 중독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종말을 대비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정신과 온 몸이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마니아'라는 말도 사실 위험한 말입니다. 뭔가에 '미친 것처럼 빠져 있다'는 것도 정도껏 할 일입니다. 그게 정말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해도...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외에는 '미친 것처럼 빠져들'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송영진 모세 신부님-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를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